

비이동 겹목적어 구문의 구조와 생략의 치유 효과*

김용하

(안동대학교)

Kim, Yong-Ha. 2010. *The Structural Representation of the Non-Movement Multiple Object Construction and Repair by Dele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8(1). 45-65. This paper, as a supplementary study to Y.-H. Kim (2006), tries to present the structural representation of the non-movement multiple object construction, and explain some related problems based on repair-by-deletion. Meanwhile, it also criticizes the debate on 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 in the realm of Korean linguistics. It will be clarified that the useless debate should be replac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so-called adverbial constituent clause. Thus, the embedded clause of the construction in question should be regarded as an adjunct.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attempts to determine what is the identity of the subject of the adjunct clause. Finally, it discusses the effects of repair-by-deletion on some awkward examples that constitute a problem with Y.-H. Kim's (2006) analysis.

Key Words: 비이동 겹목적어 구문, 종속 접속문, 포유문, 생략, 생략의 치유, 지배성 조건의 조용, 선행성 조건의 조용, 공범주, 문체론적 제약

1. 들머리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비이동 겹목적어 구문¹⁾에 대한 Y.-H. Kim(2006)의 분석을 보충하는 후속 연구로서 비이동 겹목적어 구문의 구체적인 구조 표상을 제시하고, 이 구조 표상과 관련된 문제를 생략의 치유(repair-by-deletion) 효과로 설명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안동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겹목적어 구문의 여러 유형 중 (1)과 같은 유형만을 자세히 다룬 논의는 극히 적어서 중 김영희(1998)의 논의가 거의 유일하다. 김영희(1998)는 (1)과 같은 유형의 겹목적어 구문을 일종의 명사구 동격 구성으로 보았다.

- (1) a. 철수가 담배를 디스를 샀다.
 b. 순희가 꽃을 장미를 좋아한다.
 c. 돌이가 모자를 검은 것을 골랐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Y.-H. Kim(2006)은 (1)과 같은 구문들이 다음 (2)와 같은 구문들에 의사-비우기(pseudo-gapping)와 같은 생략이 적용되어 결과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 (2) a. 철수가 담배를 샀는데, 디스를 샀다.
 b. 순희가 꽃을 좋아하는데, 장미를 좋아한다.
 c. 돌이가 모자를 검은 것을 골랐다.

Y.-H. Kim(2006)은 (2)에서 (1)이 도출되는 과정을 정당화하는 데 몰두하여 그 구체적인 구조 표상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1)의 기저구조에 해당하는 (2)의 구조 표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문제는 과연 (2)의 예문들에 나타난 주어들이 종속절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주절에 속해 있는가를 밝히는 일이다.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주절 주어가 공범주가 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종속절 주어가 공범주가 되는 것이다. 이 공범주의 소속이 밝혀지면 그 정체를 밝히는 일도 관련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한편 다음 (3)-(4)와 같은 대조를 Y.-H. Kim(2006)의 체계에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따져보는 것도 생략 분석의 정당성을 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 (3) a. 철수가 담배를, 디스를, 1mg짜리를 샀다.
 b. 순희가 꽃을, 장미를, 흰 것을 좋아한다.
 c. 돌이가 모자를, 검은 것을, 만원짜리를 샀다.
 (4) a. [?]철수가 담배를 샀는데, 디스를 샀는데, 1mg짜리를 샀다.
 b. [?]순희가 꽃을 좋아하는데, 장미를 좋아하는데, 흰 것을 좋아한다.
 c. [?]돌이가 모자를 샀는데, 검은 것을 샀는데, 만원짜리를 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2)와 같은 종속 접속문의 구조를 규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속절 주어로서 어휘적 주어를 설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공범주 주어를 설정해야 하는가를 밝히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생략 이전의 비적격성이 생략 이후에 개선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2. 비이동 접목적어 구문에 대한 Y.-H. Kim(2006)의 분석

Y.-H. Kim(2006)은 (1)의 문장들이 매우 특이한 구문에 속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1)의 문장들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대격을 가진 성분들이 각각 서술어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이 두 목적어가 하나의 구성 성분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일반적인 비양도성 소유 관계의 접목적어는 하나의 NP/DP를 이루다고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다.

- (1) a. 철수가 담배를 디스를 샀다.
 b. 순희가 꽃을 장미를 좋아한다.
 c. 돌이가 모자를 검은 것을 골랐다.
- (5) a. *²철수가 [담배(의) 디스]를 샀다.
 b. *²순희가 [꽃(의) 장미]를 샀다.
 c. *²돌이가 [모자(의) 검은 것]을 썼다.
- (6) a. 철수가 책상을 다리를 고쳤다.
 b. 순희가 철수를 뺨을 때렸다.
 c. 돌이가 생선을 속살을 발라냈다.
- (7) a. 철수가 [책상(의) 다리]를 고쳤다.
 b. 순희가 [철수(의) 뺨]을 때렸다.
 c. 돌이가 [생선(의) 속살]을 발라냈다.

(7)이 보여주듯 (6)은 전형적인 비양도성 소유 관계의 접목적어 구문들이다. 그런데 (1)의 문장들은 (5)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소유 관계(혹은 어떤 관형 구성 관계)로 환원될 수가 없다. 비양도성 소유 관계의 접목적어 구문과 비이동 접목적어 구문의 대조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6a)의 부정문인 (8a)와, (1a)의 부정문인 (8b) 간의 의미적 대조에 주목하라.

- (8) a. 철수가 책상을 다리를 안 고쳤다.
 ≡ 철수가 책상을 고치긴 했으나 다리를 고치지는 않았다.
 ≡ 철수가 책상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의 다리를 고쳤다.
- b. 철수가 담배를 디스를 안 샀다.
 ≡ 철수가 담배를 사긴 했으나 디스를 사지는 않았다.
 ≠ 철수가 디스를 비롯하여 어떤 담배도 사지 않았다.

이들의 의미적 대조는 부정의 초점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8a)에서는 제1 목적어도

부정의 초점이 될 수 있고 제2 목적어도 부정의 초점이 될 수 있지만, (8b)에서는 오로지 제2 목적어에만 부정의 초점이 놓일 수 있다. 그렇다면 (8b)에서 제1 목적어에 부정의 초점이 놓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7)을 고려하면, 비양도성 소유 관계의 접목적어 구문은 단문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8a)에서는 부정 부사 '안'과 동일한 절 안에 있는 제1 목적어와 제2 목적어가 선택적으로 부정의 초점을 받을 수 있다. 대조적으로, 만일 (8b)가 사실은 복문이라면 어떠한가? 즉 제1 목적어가 겹보기와 달리 부정 부사 '안'이 속한 절이 아닌 다른 절에 존재한다면 어떠한가? 이 경우 제1 목적어는 부정의 초점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8)의 대조는 비이동 접목적어 구문에 대한 복문 분석을 지지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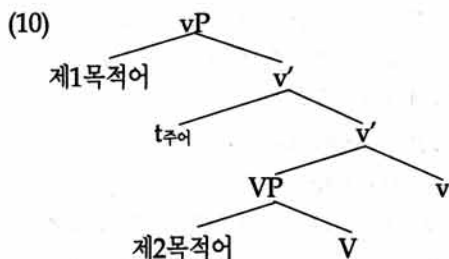
비양도성 소유 관계의 접목적어 구문과 비이동 접목적어 구문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문 쪼개기(sentence clefting)에서도 드러난다.

- (9) a. 철수가 다리를 고친 것은 책상이다.
 b. *철수가 디스를 산 것은 담배이다.

(9a)는 (6a)의 제1 목적어가 문 쪼개기에 의해 초점화된 것이고 (9b)는 (1a)의 제1 목적어가 문 쪼개기에 의해 초점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문법성은 보는 바와 같이 사뭇 다르다. 이것은 곧 (1)과 (6)의 접목적어 구문들이 동일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도출되는 것이 아님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비이동 접목적어 구문을 분석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동 분석이 가능한 비양도성 소유 관계의 접목적어 구문과 달리 임흥빈(1987)과 이광호(1988) 식의 주제어 분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²⁾ 그러나 비이동 접목적어 구문을 임흥빈(1987)과 이광호(1988)처럼 주제가가 개입된 것으로 분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목적어가 두 개 있는 문장들의 경우 제1 목적어가 주제가로서 적어도 vP(혹은 v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VP) 내부에 등장해야 할 것이다.³⁾ 아래 (10)이 이러한 분석을 보여준다.

- 2) 임흥빈(1987)과 이광호(1988)는 두 유형의 접목적어 구문 모두에 주제어 분석을 적용한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 이 두 구문을 동일하게 분석하는 것은 두 구문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못하다. 임흥빈(1987) · 이광호(1988)와 다른 접근법을 취하긴 했지만 Jang(2005)과 Jung(2004, 2005)도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비판될 수 있다. 이들도 비양도성 소유 구문과 비이동 접목적어 구문에 동일한 메커니즘이 작용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 3) (10)이 임흥빈(1987)과 이광호(1988)의 분석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임흥빈(1987)은 성분 주제어라는 개념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가 논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10)과 같은 주제어 분석을 그대로 상정한다.



(10)과 같은 구조가 가진 첫 번째 문제점은 과연 제1 목적어가 주제어라는 지위를 v의 지정어 위치에서 획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른바 기능적 문장 조감(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에서, 화자가 언명하는 대상으로 간주되는 주제어가 오히려 평설(comment)의 일부인 동사구 내에 존재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cf. Lyons 1968, Halliday 1994). 즉 제1 목적어가 vP 내에서 주제어가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10)의 두 번째 문제점은 제1 목적어가 논항으로서도 인허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비록 vP가 완전 기능복합체(complete functional complex)로서 자신의 내부 영역에서 의미역을 완전히 결정한다 하더라도 (10)에서 제1 목적어에 주어질 수 있는 의미역은 없다. 즉 (10)에서 제1 목적어는 의미역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논항의 순수 병합 요건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11) Θ -위치로의 순수 병합은 논항에 대해 요구되며 논항에만 국한된다. (Chomsky 2000)

이처럼 현재까지의 비이동 겹목적어 구문에 대한 분석에 난점이 있다고 볼 때,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가? Y.-H. Kim(2006)은 (1)의 문장들이 (2)의 문장들에 모종의 생략이 적용되어 나타나는 문장이라고 분석함으로써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 (1) a. 철수가 담배를 디스를 샀다.
 b. 순희가 꽃을 장미를 좋아한다.
 c. 둘이가 모자를 검은 것을 골랐다.
- (2) a. 철수가 담배를 샀는데, 디스를 샀다.
 b. 순희가 꽃을 좋아하는데, 장미를 좋아한다.
 c. 둘이가 모자를 골랐는데 검은 것을 골랐다.

이처럼 (2)가 생략이 일어나기 이전의 문장이라고 한다면 왜 하필이면 ‘-는데’라는 접속 어미

가 나타난다고 특정하는가, 그리고 독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는데'가 어찌하여 생략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즉각 제기될 수 있다. Y.-H. Kim(2006)은 두 목적어 간의 의미 관계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다. (2)의 문장들 각각에서 두 목적어는 대소 관계(macro-micro relation) 혹은 부류-성원 관계(class-membership relation)에 놓여 있다. 이런 의미 관계는 전형적으로 주제-평설 구조에서 실현된다(cf. Ahn · Kim 1992). 한편 '-는데'의 의미 기능은 전통적으로 '상황 설명' 혹은 '배경 제시'로 정의된다(서정수 1973, 이기동 1979, 김용석 1981, 권재일 1985, 최재희 1990, 이은경 2000). 이는 곧 '-는데'에 이끌리는 종속절이 마치 주제어/화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의 문장들에서 두 목적어가 가지는 대소 관계 혹은 부류-성원 관계 또한 화제-평설 구조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서 제1 목적어가 부분적으로 주제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는데'의 의미가 두 목적어의 의미 관계에 의해 포착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생략의 복원 가능성(recoverability)에 의거해서 독자적 의미를 갖고 있는 '-는데'가 생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Y.-H. Kim(2006)이 제시하는 생략의 구체적인 과정은 어떠한가? 그에 따르면 (2)에서 이루어지는 생략은 Lasnik(1995)의 의미에서 의사 비우기(pseudo-gapping)와 같은 형식의 생략이다. 의사 비우기에 목적어 이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을 의사 비우기의 결과라고 주장할 경우 (2)에도 목적어 이동이 반드시 일어났다고 분석해야 한다. 과연 (2)에 목적어 이동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존재하는가? 아래를 보라.

(12) *?철수가 담배를 디스 샀다.

제2 목적어가 무표격을 가질 경우 (12)에서 보듯 비이동 겹목적어 구문의 문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Y.-H. Kim(2006)은 이러한 문법성 하락의 원인을 김용하(1999)의 이론으로부터 규명한다. 김용하(1999)는 유표격 목적어와 무표격 목적어가 각기 다른 구조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주장하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무표격 목적어 NP/DP는 VP 내에 있고 유표격 목적어 NP/DP는 v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

(13)을 염두에 두고 (12)의 도출 과정을 고려해 보자. (12)는 생략이 일어나기 전, '-는데' 종속절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형식의 문장이었을 것이다.

(14) 철수가 담배를 샀는데 디스 샀다.

여기서 종속절과 주절은 각각 vP를 구성하고 있는데 유표격을 가진 제1 목적어는 v의 지정

어 위치로 이동했을 것이고 무표격을 가진 제2 목적어는 V의 보충어 위치에 머무를 것이다. 이를 각각 표상하면 다음과 같다.

- (15) a. [_{VP} 담배를 [_{VP} t 사] v]
 b. [_{VP} [_{VP} 디스 사] v]

이제 (15a)의 VP에 생략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그것은 곧 (15a)의 VP와 (15b)의 VP가 동일한 음성 형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두 목적어에 모두 유표격이 표시된 아래 (16)은 문법성에 문제가 없으며, (16)은 아마 (17)에서 생략이 적용되어 도출되었을 것이다.

- (16) 철수가 담배를 디스를 샀다.
 (17) 철수가 담배를 샀는데 디스를 샀다.

공히 유표격이 표시된 제1 목적어와 제2 목적어는 각각 자신이 속한 절의 v-지정어 위치로 이동해 있을 것인바 종속절과 주절 vP는 다음과 같이 표상될 수 있다.

- (18) a. [_{VP} 담배를 [_{VP} t 사] v]
 b. [_{VP} 디스를 [_{VP} t 사] v]

이제 (18a)와 (18b)의 VP들은 동일한 음성 형식을 갖고 있게 되었으므로, (18a)에 생략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16)은 합법적인 생략이 일어난 적격문이 된다.

Y.-H. Kim(2006)은 자신의 분석이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대조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19) *²철수가 담배를 한 갑 디스를 샀다.
 (20) 철수가 담배를 디스를 한 갑 샀다.

(13)에 의거해서 무표격 ‘한 갑’은 VP 내부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해당 VP가 포함된 vP의 구조는 (21a)와 같을 것이다. 또한 주절 vP의 구조는 (21b)와 같을 것이다. 관련 생략의 의사 비우기인바, (21a)의 VP 안에 ‘한 갑’이 존재함으로써 인해 해당 VP에서 ‘사’만이 선택적으로 삭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19)는 부적격한 문장이 되고 만다.

- (21) a. [_{VP} 담배를 [_{VP} t 한 갑 사] v]

b. [_{VP} 디스를 [_{VP} t 사] v]

반면, (20)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한 갑’이 주절 VP 내에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은 종속절 VP에도 ‘한 갑’이 포함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생략 이전 문장으로 상정할 수 있다.

(22) 철수가 담배를 한 갑 샀는데, 디스를 한 갑 샀다.

이 경우 (22)에서 각 절의 vP는 다음 (23)과 같이 표상된다. 우리는 관련된 두 VP가 동일한 음성 형식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곧 (23a)의 VP가 생략될 수 있는 것이다.

(23) a. [_{VP} 담배를 [_{VP} t 한 갑 사] v]

b. [_{VP} 디스를 [_{VP} t 한 갑 사] v]

Y.-H. Kim(2006)은 자신의 분석이 가진 설명력을 여러 다른 예들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모두 다룰 필요는 없으므로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보고 이 절을 마무리하자. 앞에서 우리는 비이동 접목적어 구문을 비양도성 소유주 구문과 평행한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24)와 같은 문장의 의미적 양상을 포착하기 힘들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25)에 의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것인데, Y.-H. Kim(2006)에 따르면 (24)를 (26)과 같이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적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4) 철수가 담배를 디스를 안 샀다.

(25) a. *철수가 어떤 담배도 디스를 안 샀다. (cf. 철수가 어떤 책상도 다리를 안 고쳤다.)

b. 철수가 담배를 어떤 국산 담배도 안 샀다. (cf. 철수가 책상을 어떤 부분도 안 고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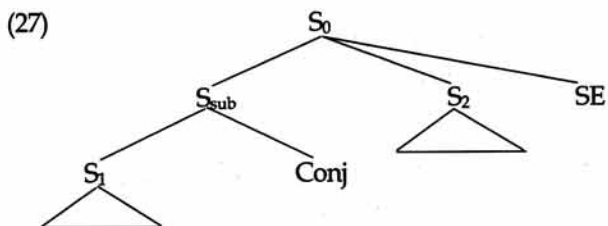
(26) 철수가 [_{VP} 담배를 [_{VP} t-사] v]-샀는데 [_{VP} 디스를 [_{VP} 안 [_{VP} t 사]] v]-샀다.

Y.-H. Kim(2006)의 분석에 숨겨진 문제점이 존재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비이동 접목적어 구문에 대해 일정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것 또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차후의 어떤 관찰들에 의해서 이 분석이 가진 문제점이 드러나면 적절한 수정을 가해 설명력을 더 획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Y.-H. Kim(2006)이 미처 다루지 못했으나, 해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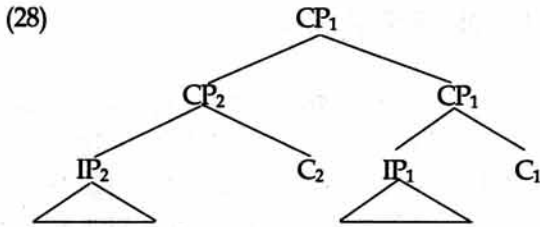
3. 종속 접속문/포유문 구조와 종속절 주어

앞 절까지 본 연구에서는 비이동 겹목적어 구문에 포함된 ‘-는데’ 절에 대해 ‘종속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 절이 포함된 구문을 ‘종속 접속문’이라고 불러왔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표준적인 국어 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별다른 이론적 함축 없이 쓴 것이었다.⁴⁾ 그러나 실상 국어학계에서는 종속 접속문을 하나의 접속문 형식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성분절로서 부사절이라는 범주에 넣어야 하느냐가 상당히 심각한 문젯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표준적인 국어 문법을 포함하여 국어학계에서는 종속 접속문과 등위 접속문이 각기 다른 통사론적 특징을 가진 변별적 접속문의 형식이라는 것이 정설이다(권재일 1985, 최재희 1985, 김인택 1993 등). 그러나 80년대 중반부터, 전통적으로 종속 접속문이라 불리어 온 구문들이 포유문으로 분석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논의들이 등장한다(유현경 1986, 남기심 1985). 이러한 주장은 김영희(1991), 이익섭·채완(1999), 이익섭(2000), 안명철(2001)에서도 제기되는데, 특히 최근 이익섭(2003)의 저서는 이 문제를 다룬 단행본으로서 부사절의 설정을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다.

비이동 겹목적어 구문의 구조 표상을 위해서는 이런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종속적 연결어미가 결합된 절이 종속절로서 종속 접속에 참여하는가 아니면 성분절인 부사절로서 포유문 구성에 참여하는가 하는 것은 용어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이는 학교문법의 체계에서 접속문에 등위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이라는 두 종류의 접속문이 존재해야 한다는 이상한 당위성 때문에 발생한 논란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최재희(1990)가 (27)과 같이 설정한 종속 접속문의 구조가 종속적 연결어미를 접속사로 처리한 부분만을 제외한다면 종속 접속절을 성분절인 부사절(즉 부가절)로 분석한 (28)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4) 여기서 표준적인 국어문법이란 학교문법(교육과학기술부 2009)이나 전통문법(최현배 1937), 그리고 남기심·고영근(1985/93), 이익섭·임홍빈(1983) 등에 기술된 문법을 말한다.



이처럼 종속 접속문이 반드시 접속이라는 측면에서만 다루어져야 할 특성을 결하고 있는 것이라면 학교문법 체계상 종속 접속이 비어 버린다는 이유만으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 할 것이다(cf. 이익섭·채완 1999: 380-383). 그런데 최근 김영희(2004)가 이른바 종속 접속절이 내포절로서의 특성뿐만 아니라 접속절로서의 특성도 공히 보여주기 때문에 이들 특성들을 각각 반영하여 때에 따라 내포절로서도 인정하고 접속절로서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이에 주목을 요한다. 만일 김영희(2004)가 제시한 증거들으로써 이른바 종속 접속문이 접속문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인정해야 한다면 최소한 일정 부분 종속 접속을 내포(혹은 부가)와는 성질이 다른 독립적인 범주로 설정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김영희(2004)의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전통적으로 종속 접속절로 다루어진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김영희(2004)는 이른바 종속 접속문의 접속문적 특성을 주로 조용 현상에 기대어 포착하고자 한다. 그는 조용을 크게 지배성 조건의 조용과 선행성 조건의 조용으로 나눈다.⁵⁾ 적어도 한국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배성 조건의 조용⁶⁾이 등위 접속문에서는 불가능한 반면, 포유문에서는 가능하다.⁷⁾ 전형적인 포유문들과 등위 접속문의 대조가 이를 잘 보여준다.

- (28) a. 언니_i가 [\emptyset _i 지은 옷을] 입고 있다.
 b. [\emptyset _i 무심했음을] 산이_i는 크게 누우쳤다.
 c. 만이_i는 [[\emptyset _i 동생이] 우등생이라고] 말했다.
- (29) a. * \emptyset 밥도 먹었고 철이_i가 빵도 먹었다.

- 5) 김영희(2004)는 조용(anaphora)이란 개념을 생성문법, 특히 지배-결속 이론 아래의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Langacker(1969)와 Quirk et al.(1972)처럼 선행사와 그 대용어 간의 관계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 점 주의해야 한다.
- 6) 여기서 지배성 조건의 조용이란 통어(command)가 조용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통어'도, 가장 널리 쓰이는 Reinhart(1976)의 성분-통어(c-command)나, Lasnik(1976)의 K-통어(K-command)라는 특정 통어라기보다는 통어 영역을 S로 보는 Langacker(1969)의 통어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러 통어에 대한 설명은 Baker·Pullum(1990)을 참고할 만하다.
- 7) 김영희(2004)는 제귀 대명사 조용과 영 조용을 모두 다루고 있으나 편의상 (그리고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영 조용의 예들만을 보기로 한다.

- b. * \emptyset 신문을 보거나 돌이가 잡지를 본다.
- c. * \emptyset 책을 폈다가 막내가 신문을 펼쳤다가 한다.

그런데 이른바 종속 접속문에서는 포유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배성 조건의 조용이 가능하다. 이것은 곧 이른바 종속 접속문이 포유문으로 분류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0) a. \emptyset 내기에 지나가 철이가 심술을 부린다.
- b. \emptyset 오겠다고 했는데 김 사장이 안 왔구나.
- c. \emptyset 동생이 술을 먹어도 석이는 술을 안 먹는다.

반면, 선행성 조건의 조용은 접속문에서만 가능하고 포유문에서는 불가능하다. 역시 전형적인 포유문들과 동위 접속문의 대조가 이를 보여준다.

- (31) a. *[언니가 지은 옷을] \emptyset_i 입고 있다.
- b. *[산이가 무심했음을] \emptyset_i 크게 다투었다.
- c. *[[만아; 동생이] 우등생이라고] \emptyset_i 말했다.
- (32) a. 철이가 밥도 먹었고 \emptyset 빵도 먹었다.
- b. 돌이가 신문을 보거나 \emptyset 잡지를 본다.
- c. 막내가 책을 폈다가 \emptyset 신문을 펼쳤다가 한다.

바로 이 선행성 조건의 조용에서 이른바 종속 접속문이 포유문과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이 김영희(2004)의 주장이다. 아래 예들을 보라.

- (33) a. [철이가 내기에 지나가] \emptyset 심술을 부린다.
- b. [아이가 집에 들어서면] [\emptyset 엄마]부터 찾는다.
- c. [석이가 술은 먹는데] \emptyset 담배는 안 피운다.

이에 더해 김영희(2004)는 대동사 조용의 예들을 통해 이른바 종속 접속문이 동위 접속문과 평행성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대동사 조용도 지배성 조건의 조용과 선행성 조건의 조용으로 구분되는바, 영 조용의 경우과 마찬가지로 포유문은 지배성 조건의 조용으로, 접속문은 선행성 조건의 조용으로 선행사와 대동사의 관계가 결정된다. 아래 (34)는 포유문에서의 대동사 조용을 보여준다(문법성 판단은 김영희(2004)의 것이다).

- (34) a. *모두가 이루어지_i기를 바라던 일이 끝내 그리_i지 않았다.
 b. *개가 저지르_i어서는 안 될 짓을 그리_i하였다.
 (35) a. 모두가 그리_i기를 바라던 일이 끝내 이루어지_i지 않았다.
 b. 개가 그리하_i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_i었다.

대조적으로, 등위 접속문에서의 대동사 조용은 선행성 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져서 포유문에서의 그것과 명확한 차이점을 드러낸다.

- (36) a. 남편도 [수레를 끌]_i고 아내도 그리하_i니다.
 b. 형이 [책을 사들이]_i거나 동생이 그리하_i니다.
 (37) a. *남편도 그리하_i고 아내도 [수레를 끄]_i니다.
 b. *형이 그리하_i거나 동생이 [책을 사들이]_i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종속 접속문의 경우는 어떠한가? 김영희(2004)에 의하면 종속 접속문은 선행성 조건의 대동사 조용만이 가능한 듯하다. 따라서 대동사 조용에서 이른바 종속 접속문은 접속문적 특성을 노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8) a. *선생님이 그러니까 학생들도 배에서 내리었다.
 b. *형이 그러는데 동생도 책을 읽는다.
 (39) a. 선생님이 [배에서 내리]_i니까 학생들도 그리하였다.
 b. 형이 [책을 읽]_i는데, 동생도 그리하_i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김영희(2004)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 우선 미묘하긴 하지만 (35)가 명확히 문법적이라는 것을 선뜻 인정하기가 어렵다. 적어도 (35)는 아주 적격한 문장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문법성 판정뿐만 아니라 (35) (그리고 (34))의 예문들이 가진 또 다른 문제점은 대동사의 선행사가 동사구가 아니라 동사라는 데 있다. (36)의 꺾쇠묶음 (bracketing)이 보여주듯 대동사 '그리하다'는 영어의 'do so'처럼 동사라는 어휘 범주 층위의 대동사가 아니라 동사구 대동사이다. 아래 (40)이 이를 잘 보여준다.

- (40) a. *²남편도 수레를 끌고, 아내로 수레를 그리한다.
 b. *²형이 책을 사들이거나 동생이 책을 그리한다.

반면에, '그리하다'가 동사구 대동사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예문은 선행성 조건의 조용이 포유문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1) 예전에도 [그 짓을 하]였던 철수가 또 [그리하]였다.

즉 대동사 조용은 포유문과 등위 접속문이 명확한 대조를 보여준다고 하기 어려운바, 이를 근거로 이른바 종속 접속문이 부분적으로나마 접속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사실 김영희(2004)의 주장에 핵심적인 것은 (33)의 예들이다. 왜냐하면 종속 접속문에서 지배성 조건의 조용이 가능하므로 (30)에서처럼 등위 접속문에서는 불가능한 역행 조용(cataphora)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서도, 등위 접속문이 보여주는 선행성 조건의 조용도 가능하다는 것을 (33)의 예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8)의 예들은 선행성 조건의 조용이 아니라 여전히 지배성 조건의 조용일 가능성도 있으며, 오히려 지배성 조건의 조용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래 (42)에서 보듯 이른바 종속 접속절들은 주절 주어를 선행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43)에서처럼 주절 주어를 후행할 수도 있다.⁸⁾

- (42) a. 돌이가 내기에 지나까 철이가 심술을 부린다.
 b. 내가 순회를 초대했는데 김 사장이 안 왔구나.
 c. 철이의 동생이 술을 먹어도 석이의 동생은 술을 안 먹는다.
- (43) a. 철이가, 돌이가 내기에 지나까, t 심술을 부린다.
 b. 김 사장이, 내가 순회를 초대했는데, t 안 왔구나.
 c. 석이의 동생은, 철이의 동생이 술을 먹어도, 술을 안 먹는다.

그렇다면 (33)의 예문들에서 종속절들의 주어들은 오히려 다음과 같이, 이동을 겪은 주절 주어일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 (44) a. 철이가, ∅ 내기에 지나까, t 심술을 부린다.
 b. 김 사장이, ∅ 오겠다고 했는데, t 안 왔구나.
 c. 석이는, ∅ 동생이 술을 먹어도, t 술을 안 먹는다.

(33)이 (44)와 같이 분석될 수 있다면 이에 나타나는 영 조용은 선행성 조건의 조용이라기보다는 지배성 조건의 조용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우리는 지배성 조건의 조용과 선행성 조건의 조용에 의해서 종속 접속절이 포함된 구문을 포유문이 아닌 접속문으로 다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

8) 편의상, 논증 없이 (43)에서 주절 주어가 종속절을 넘어서 뒤섞기와 같은 이동을 겪은 것으로 분석하겠다.

게 된다. 즉 김영희(2004)처럼 종속 접속문이 구조적 이중성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김영희(1991)의 앞선 주장처럼 종속 접속문을 포유문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이를 다시 생성문법의 틀 안에서 말하자면, 이른바 종속 접속문은 종속절이 주절에 부가된 부가 구조를 포함한 구문인 것이다.⁹⁾

위의 논의에 의거하면 (1)의 생략 전 구조인 (2)는 (44)에 유추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로 상정되어야 할 것이다.

- (45) a. 철수가 [∅ 담배를 샀는데] 디스를 샀다.
 b. 순희가 [∅ 꽃을 좋아하는데] 장미를 좋아한다.
 c. 둘이가 [∅ 모자를 골랐는데] 검은 것을 골랐다.

비이동 접목적어 구문의 생략 전 구조가 위와 같다고 할 경우,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영형식 '∅'의 정체이다. 이 영형식은 이동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아마도 생략된 주어, PRO, pro, 기생 공백, 네 가지 중 하나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중 어느 것이 영형식 '∅'이 속하는 범주인지를 결정할 차례이다.

우리는 우선 '∅'가 생략된 주어일 가능성을 먼저 배제하고자 한다. 전형적인 구성성분 생략을 등위 접속문에서 볼 수 있으므로 등위 접속문에서의 생략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¹⁰⁾

- (46) a. 지난번에도 철수가 돈을 지불했고, 이번에도 또 철수가 비용을 부담했다.
 b. 지난번에도 철수가 돈을 지불했고, 이번에도 또 ∅ 비용을 부담했다.

(46)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어떤 성분을 생략할 경우, 생략 이후의 문장과 생략 이전의 문장 간에 문법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¹¹⁾ '-는데' 절의 경우는 어떠할까?

9) 논문의 통일성을 위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래에서도 '종속절'과 '종속 접속문'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용어 사용일 뿐, 등위 접속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종속 접속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10) 주어에 강조와 같은 특수한 문체적 효과가 없을 경우에 등위 접속문에서 동일한 주어가 양쪽 절 모두에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색하다.

i) a. ⁷⁾철수가 돈을 지불했고, 철수가 일을 처리했다.

b. 철수가 돈을 지불했고, 철수가 일을 처리했다. (굵은 글씨는 강조)

(46)의 예문은 이런 강조가 좀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문맥을 위해 수식어를 포함시킨 것이다.

11) 이는 다음과 같은 생략 전·후 문장들의 문법성에서도 드러난다.

i) a. 철수는 돈을 벌고 둘이는 돈을 쓴다.

b. 철수는 돈을 벌고 둘이는 쓴다.

- (47) a. 지난번에도 철수가 돈을 지불했는데, 이번에도 또 철수가 비용을 부담했다.
 b. 지난번에도 ∅ 돈을 지불했는데, 이번에도 또 철수가 비용을 부담했다.¹²⁾

(47a)와 (47b)가 문법성에 별 차이가 없으므로 이것만을 참고한다면 종속절의 주어가 생략된 주어일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주절 주어가 문두로 이동하면 두 문장 간의 문법 차이는 명확해진다.

- (48) a. *철수가, 지난번에도 철수가 돈을 지불했는데, 이번에도 또 t 비용을 부담했다.
 b. 철수가, 지난번에도 ∅ 돈을 지불했는데, 이번에도 또 t 비용을 부담했다.

(48)의 두 문장이 보여주는 문법성 대조가 시사하는 것은 적어도 종속절의 주어가 생략의 절차에 의해서 '∅'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우리의 선택지는 PRO, pro, 기생 공백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세한 논의를 하지 않고 종속절 주어가 pro라는 가정을 할 것이다.¹³⁾

4. 생략의 치유 효과

비이동 겹목적어 구문에 대한 Y.-H. Kim(2006)의 분석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마지막

- ii) a. 철수는 택시를 몰고, 돌이는 버스를 본다.
 b. 철수는 택시를, 돌이는 버스를 본다.
 iii) a.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돌이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귈다.
 b.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돌이는 친구를 사귈다.
- 12) (47b)는 주절 주어를 생략해도 문법성에 차이가 없다.
 i) 지난번에도 철수가 돈을 지불했는데, 이번에도 또 ∅ 비용을 부담했다.
 이는 선행성 조건의 조용이 종속 접속문의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김영희(2004)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이 선행성 조건이 포유문에서는 불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처럼 일부 인정되는 부사절을 안은 포유문에서도 선행성 조건의 영 조용이 가능하다.
 ii) a. 지난번에도 철수가 돈을 냈듯이 이번에도 철수가 돈을 냈다.
 b. 지난번에도 철수가 돈을 냈듯이 이번에도 ∅ 돈을 냈다.
 iii) a. 지난번에도 철수가 돈을 냈다시피, 이번에도 철수가 돈을 냈다.
 b. 지난번에도 철수가 돈을 냈다시피, 이번에도 ∅ 돈을 냈다.
- 13) 세 가지 선택지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작업이어서 본 연구의 한 부분으로 다루기에는 벅차기 때문이다. 들머리에서 밝혔다시피 일단 본 연구에서는 종속절 주어가 어휘적인 요소인지 공범주 요소인지를 밝히는 것에 만족하기로 하자. 사실 필자는 기생 공백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이럴 경우 적잖은 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pro를 상정한다. 자세한 논의는 후고를 준비 중이다.

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생략의 치유 효과이다. 서두에서 지적한 것처럼 (1)을 (2)에 의사 비유기가 적용된 결과라고 분석할 경우 (3)-(4)와 같은 대조가 문제를 일으킨다.

- (3) a. 철수가 담배를, 디스를, 1mg짜리를 샀다.
 b. 순희가 꽃을, 장미를, 흰 것을 좋아한다.
 c. 돌이가 모자를, 검은 것을, 만원짜리를 샀다.
- (4) a. ?철수가 담배를 샀는데, 디스를 샀는데, 1mg짜리를 샀다.
 b. ?순희가 꽃을 좋아하는데, 장미를 좋아하는데, 흰 것을 좋아한다.
 c. ?돌이가 모자를 샀는데, 검은 것을 샀는데, 만원짜리를 샀다.

만일 비이동 겹목적어 구문이 종속절 서술어와 '-는데'의 생략으로 도출되는 것이라면 (3)의 복원문들에 해당하는 (4)의 예문들이 보여주는 비적격성이 (3)에서는 왜 사라지는가? 이는 Y.-H. Kim(2006)의 분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반례들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이 반문해 볼 수 있다고 본다. (4)의 비적격성이 과연 문법적인 원인이나 의미론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실 (4)의 비적격성의 원인이 무엇인지 추론하는 것조차도 어렵다. 그러면 문법적 원인이나 의미론적 원인 외의 어떤 원인에 의하여 (4)의 비적격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닐까? 이와 관련해서 (49)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49) a. ?[철수가 책만 읽어서] 순희가 화를 내서] 돌이가 집에 돌아갔다.
 b. ?[철수가 책만 읽으면] 순희가 화를 내면] 돌이가 집에 돌아갈 것이다.
 c. ?[철수가 책만 읽지만] 순희가 화를 내지 않지만] 돌이가 집에 돌아갔다.

(49)의 예문들은 인과의 '-어서', 조건의 '-면', 대립의 '-지만'이 이끄는 각 종속절이 또 해당 어미가 이끄는 종속절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다. (4)의 문장들이 비적격 문장들이라면 그 원인은 (49)의 문장들이 가진 비적격성의 원인과 동일할 것이다. 이는 동일 어미 중 하나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어미로 바꾼 (50)의 예문들에서 비적격성이 훨씬 완화된다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 (50) a. [[철수가 책만 읽어서] 순희가 화를 내니까] 돌이가 집에 돌아갔다.
 b. [[철수가 책을 읽을 경우] 순희가 화를 내면] 돌이가 집에 돌아갈 것이다.
 c. ?[[철수가 책만 읽지만] 순희가 화를 내지 않았으나] 돌이가 집에 돌아갔다.

(50)은 (49)의 비적격성이 문법적이거나 의미론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체적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 가능성을 받아들여 보자. 그렇다면 (4)의 비적격성 역시도 의미론적/문법적 원인에 의해서 야기되기보다는 문체적인 이유에 의해서 노정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즉 (4)와 (49)에는 다음과 같은 문체적 제약이 작동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51) 어떤 특정 연결어미를 가진 절이 동일한 연결어미를 가진 또 다른 절에 내포되면 문체적 위화감이 야기된다.

(4)와 (49)의 비적격성을 (51)에 의거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3)에서 적격성이 개선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이것이 곧,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 생략의 치유 효과 중 하나인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생략의 일종인 수문화(sluiting)는 통사적인 섬 제약까지도 치유한다(Lasnik 2002; cf. Ross 1967). 아래 (52)에 몇 가지 예들이 제시되어 있다.

- (52) a. They want to hire someone who speaks a Balkan language, but I don't remember which. (관계절 섬)
 b. She bought a big car, but I don't know how big. (좌분지 섬)
 c. A biography of one of the Marx brothers is going to be published this year—guess which! (주어 섬)
 d. Ben will be mad if Abby talks to one of the teachers, but she couldn't remember which. (부가어 섬)

(52)가 보여주다시피 수문화의 치유 효과는 얇은 문체론적인 제약의 극복 정도가 아니라 매우 큰 문법적 제약인 섬 제약들마저도 극복하는 강력한 효과를 지닌다. 이에 비해 비이동 겹목적어 구문에 나타나는 치유 효과는 문체론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으로서 그 힘이 수문화에 비하여 강력하다고 보기 어렵다.

생략의 치유 효과는 수문화 구문에 그치지 않는다. K.-S. Kim(2005)은 한국어의 일부 관계절에서도 생략에 의한 치유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예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 (53) a. 철수가 (*-에서) 공부하는 방
 b. 순희가 (*-으로) 그림을 그린 크레파스
 c. 돌이와 순희가 (*-에) 만난 시각

(53)에 나타나는 치유 효과는 형태론적 제약의 극복이다. 즉 형태론적으로 접사인 한국어의 조사들이 관계절에서 생략됨으로써 접사가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접사 고립(affix stranding) 제약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3)에서 수용성이 나아지는 것도 이런 치유 효과의 한 양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동일한 연결어미들이 음성적으로 연이어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51)과 같은 문체적 제약이 치유된 것이다. 결국 생략은 통사론, 형태론, 문체론에 걸쳐서 광범위한 치유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Y.-H. Kim(2006)이 비이동 접목적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 구문들의 구조 표상을 제시하면서 종속절의 지위와 종속 접속의 문제를 다루었고, 종속절 주어 가 어휘적 요소인지 공범주 요소인지를 결정하려는 시도를 했다. 또한 생략이 비이동 접목적어 구문에서 어떤 치유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논의하였다.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함으로써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비이동 접목적어 구문에 대한 Y.-H. Kim(2006)의 분석은 비양도성 소유주 올리기 구문과 평행한 분석을 한 기존 분석들의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하긴 했으나 생략이 이루어지는 절의 구조를 상세히 표상하지 않았고 또한 설명을 요하는 자료들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다. 우선 구조 표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Y.-H. Kim(2006)의 분석을 보충하기 위해 ‘-는데’ 절의 지위가 무엇인지를 논의했다. 비록 용어 사용에 있어서 ‘종속 접속문’이나 ‘종속절’을 일관되게 사용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는 체계상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종속 접속을 인정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다. 이른바 종속 접속문은 접속문의 한 유형으로서 존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부사절 역할을 하는 성분절로 설정되어야 마땅하다. 이른바 종속 접속문이 구조적 이 중성을 지닌다는 김영희(2004)의 주장은 종속 접속문이 포유문의 일종임을 역설한 김영희(1991)의 주장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생성문법의 용어를 빌자면 ‘-는데’절을 비롯한 종속절들은 부가절로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얼핏 종속절의 주어로 보이는 어휘적 주어는 사실상 주절의 주어이며, 종속절의 주어는 공범주 요소 \emptyset 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pro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생략이 통사론적으로 심 제약과 같은 문법적 제약을 극복하는 치유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고, 관계절에서의 부사격 조사 생략이 또한 형태론적인 치유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는바, 비이동 접목적어 구문의 복원문 중 비적격성을 보이는 문장들도 이러한 생략의 치유 효과 덕분에 구제될 수 있다. 결국 생략의 치유 효과는 통사론, 형태론뿐만 아니라 문체론에 걸쳐서도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고등학교 문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권재일. (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서울: 집문당.
- 김영희. (1991). 종속 접속문의 통사적 양상. *들매 서재극 박사 환갑 기념 논문집* (pp. 165-188).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김영희. (1998). *한국어 통사론을 위한 논*. 서울: 한국문화사.
- 김영희. (2004). 종속 접속문의 조용 현상과 구조적 이중성. *국어학*, 43, 247-272.
- 김용석. (1981). 연결어미 '-는데'에 대하여. *배달말*, 6, 269-291.
- 김용하. (1999). *한국어 격과 어순의 최소주의 문법*. 서울: 한국문화사.
- 김인택. (1983). 한국어 종속마디와 어찌마디. *국어국문학(부산대)*, 30, 273-298.
- 남기심. (1985). 접속어미와 부사형 어미. *말*, 10, 69-77.
- 남기심 · 고영근. (1985/93).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서정수. (1973). 접속어미 '-는데'에 관하여. *국어국문학*, 61, 452-454.
- 안명철. (2001). 부사어 범주의 체계화를 위하여. *어문연구*, 29(3), 5-27.
- 유현경. (1986). 국어 접속문의 통사적 특질에 대하여. *한글*, 191, 77-104.
- 이광호. (1988). *국어 격 조사 "을/를"의 연구*. 서울: 탑출판사.
- 이기동. (1979). 연결어미 '-는데'의 화용상의 기능. *인문과학*, 40 · 41, 117-142.
- 이은경. (2000). *국어의 연결 어미 연구*. 서울: 태학사.
- 이익섭. (2000). *국어학 개설*. 서울: 학연사.
- 이익섭. (2003). *국어 부사절의 성립*. 서울: 태학사.
- 이익섭 · 임홍빈. (2003). *국어 문법론*. 서울: 학연사.
- 이익섭 · 채완. (1999). *국어 문법론 강의*. 서울: 학연사.
- 임홍빈. (1987). *국어의 재귀사 연구*. 서울: 신구문화사.
- 최재희. (1985). '-고' 접속문의 양상. *국어국문학*, 94, 139-166.
- 최재희. (1990). *국어의 접속문 구성 연구*. 서울: 탑출판사.
- Ahn, S.-H. and K. Kim. (1992). Extrinsic topics and presupposition accommodatio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17(2), 363-407.
- Baker, C. and G. K. Pullum. (1990). A theory of command relation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3, 1-34.
- Chomsky, N. (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R. Marin, D. Michaels, and J. Uriagereka (Eds.),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pp. 89-155). Cambridge, Mass.: MIT Press.
- Halliday, M. A. K. (199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Edward

Arnold.

- Jang, Y. (2005). NP-split, afterthought, and counter-countercyclic merger.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0(4), 693-713.
- Jung, Y.-J. (2004). NP-splits, word order and multiple case mystery.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9(4), 547-587.
- Jung, Y.-J. (2005). Partial chain pronunciation at eh PF interfaces.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5(4), 433-456.
- Kim, K. (2005) Missing affixes.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5(3), 275-292.
- Kim, Y.-H. (2006). A case for ellipsis in Korean: The non-movement multiple object constructio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6(4), 707-742.
- Langacker, R. W. (1969). On pronominalization and the chain of command. In D. Reibel and S. Schane (Eds.), *Modern studies in English* (pp. 160-186).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Lasnik, H. (1976). Remarks on coreference. *Linguistic Analysis*, 2, 1-22.
- Lasnik, H. (1995). A note on pseudo-gapping. In R. Pensalini and H. Ura (Eds.), *Papers on minimalist syntax: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7* (pp. 143-163). MITWPL.
- Lasnik, H. (2002). On repair by ellipsis. In *Proceedings of the 2002 LSK Summer Conference Volume I* (pp. 23-36).
- Lyons, J. (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 Reinhart, T. (1976). *The syntactic domain of anaphor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 Ross, J. R. (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김용하

760-749 경북 안동시 송천동 388
 안동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 (054)820-5355
 이메일: kyocheon@andong.ac.kr

Received: 3 February, 2010

Revised: 8 March, 2010

Accepted: 15 March, 2010